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기 943-9

공감뉴스 전·복·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위발우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1월 1일(수) 제 3010호

道,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속도'

'새만금권역공동발전전략 연구' 용역 설치 방향 제시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협력체계 구축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6월부터 2월까지 추진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새만금 권역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상생발전과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설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3개 시군이 특별지자체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군 간 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사업과 세부 실행 방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명확한 추진 전략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수행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결과를 3개 시군과 공유하며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힘을 모아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견고한 협력체계이다. 단합된 힘으로 새만금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행정 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새만금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며 이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도 3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맡는 방식을 채택해 지역 간 소통과 협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새만금 권역 공동 협력 단위성과 공동발전 비전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의 필요성 △새만금 특별지자체 단계별 조직체계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6개 분야 47개 공동협력 사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약안 등이 제시됐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대응하고 협력을 통한 새만금의 세계 경쟁력 강화 등의 공동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상생과 공존'으로 지방시대 발전을 선도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라는 비전으로 새만금을 친환경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새만금 특별지자체의 조직은 공동 협력사무의 수행 시기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조직을 구축,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다. 발굴된 공동협력 사무는 기획·행정 7개, 관광·체육 12개, 산업·경제 8개, 건설·교통 10개, 환경·안전 7개, 농업 3개 등 6개 분야 47개 과제로 구성됐다.

/김관 기자



'송구영신의 시간' 무심코 뒤돌아보니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송구영신의 시간입니다. 갑진년 12월, 혼군을 넘어 폭군 치하의 혼몽무도한 격랑을 헤쳐나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었을 분노와 고통을 생각합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이 추락하면서 발생한 탑승객 179명의 희생에 곡진한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 파괴라는 분노와 안타까운 참극이 안겨준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쉽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올사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사진:글=김관 기자>

[전북타임스 최준호 사장 2025 신년사]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사(靑蛇)의 해라고 합니다.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뱀의 해는 12간지 중 여섯 번째에 해당하며 지혜와 통찰, 재생과 변혁, 풍요와 보호 등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뱀의 해가 갖는 이러한 상징대로 올 한해도 새로운 도전과 계획을 세워서 뜻하는 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느 해인들 다사다난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특히 2024년 연말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계엄선포라는 미증유의 사변을 겪었습니다. 비록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들의 기민한 행동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내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혼군(昏君)을 넘어 폭군 치하에서 혼몽무도(昏蒙無道)한 격랑을 헤쳐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불확실성이 크더라도 이를 뚫고 주저 앉을 수는

없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터널 속이더라도 긍정마인드로 희망의 촛불을 밝히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있 습니다. 구랍 29일에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이 추락해 탑승객 179 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일상이 무너진 듯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런 비극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시름에 빠져 좌절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2025년 역시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창의적이고 공정한 보도로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전북타임스는 올해도 내실을 더욱 다지고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비효율성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전북타임스

는 '도민을 주민으로 모신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발전이 곧 도민의 행복'이라는 명제하에 전북도정을 비롯한 일선 시군의 시정과 군정이 보다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언론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또한 독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해서 지면에 반영하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그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하겠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이자, 미래를 향한 모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시각을 유지할 것입니다. 언론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정확한 판단과



의 사 결 정 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비능률과 불합리한 기존 신문시장의 관행에서 벗어나 고품격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려는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창간 14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전북타임스의 미래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타임스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디어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독자들의 니즈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에 주목해 지면 구성을 보다 다양하고 특색있게 꾸미겠습니다. 전북타임스는 올해도 더 많

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아젠다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사회 각 분야마다 불확실성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혼돈과 불확실성의 어두운 시대일수록 중심을 잡고 전북타임스가 추구해 온 가치를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버팀목이며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뛰어가는 운명공동

체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전북타임스를 더욱 강한 신문으로 만듭니다. 지역 발전과 함께 '사람냄새 나는 뉴스, 건강하고 밝은 뉴스'를 찾아 아침 식탁에 올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적극 소통하면서 한 걸음 더 전진하겠습니다. 그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社告

독자 제원계 알림입니다

전북타임스는 을사년 새해 연휴를 맞아 구랍 3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휴간에 들어간 뒤 6일 자에 신문을 발행합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휴간하는 동안 휴식을 취한 뒤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반해 제작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뉴스와 콘텐츠를 들고 독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을사년 새해에도 불끈 솟아 오른 저 붉은 태양의 웅혼한 기운을 받아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북타임스 임직원 일동 세배

을사년 [乙巳年]

2025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日新月異 (일신월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

군산시의회 GUNSAN CITY COUNCIL

2025년도 군산시의회 운영계획안

회기별	기간	회의 회수	주요 내용	비고
제270회 임시회	1. 14.(화) ~ 1. 17.(금)	4	• 부의안건 처리 •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 市산민인사회 : 1월~2월 ※ 출납식 : 1월~2월	
제271회 임시회	2. 10.(월) ~ 2. 21.(금)	12	• 부의안건 처리 •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72회 임시회	3. 18.(화) ~ 3. 28.(금)	11	• 부의안건 처리 • 주요사업장 현황방문(해빙기)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편성시) • 결산검사 위원 선임	
제273회 임시회	4. 8.(화) ~ 4. 11.(금)	4	• 부의안건 처리	
제274회 제1차 정례회	6. 10.(화) ~ 6. 24.(화)	15	• 부의안건 처리 • 2024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제275회 임시회	7. 8.(화) ~ 7. 11.(금)	4	• 부의안건 처리 • 특별위원회 구성(예산결산, 윤리)	
제276회 임시회	8. 26.(화) ~ 9. 5.(금)	9	• 부의안건 처리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편성 시)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제277회 임시회	10. 14.(수) ~ 10. 24.(금)	11	• 부의안건 처리 • 25년 업무실적 및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78회 제2차 정례회	11. 11.(화) ~ 12. 19.(금)	39	• 부의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 • 2024년 결산추경예산(안) 심의 •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	

※ 총회의 9회(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회의일수 109일(정례회 54일, 임시회 55일)
 * 본 계획은 의회 일정과 추경예산 편성 및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428억 확보

대표도서관·익산 IC 연결도로 확포장·꿀벌자원 증식장 등 현안사업 탄력 기대

전북자치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사업에 쓸 특별교부세 42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전북자치도가 필요한 사업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생에 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도민 안전확보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예산을 확보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추진과 도민안전에 대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주요 지역현안사업은 ▲전북도민의

문화 랜드마크가 될 대표도서관 건립 35억원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익산 IC 연결도로 확포장 10억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꿀벌자원 증식장 10억원 ▲토하 모하 공급시설 10억원 등이 다. 또한 도민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은 ▲화재 대응 복용터널 제연설비 설치 35억원 ▲만경대교 보수보강 5억원 등이

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전북도민의 어려움을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한 끝에 얻어낸 성과”라며, “교부받은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민정 기자

<전북도교육감 신년사>

“학력신장·공교육 책무성 강화 할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거석 교육감

2025년 희망찬 을사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전북교육은 ‘학력 신장’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습 수준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도 차별 없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공교육의 책임이며, 전북교육의 기본 원칙입니다. 교사가 학생 지도와 수업에 열정과 성의를 담을 수 있도록 교권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학교가 신뢰와 존중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학교가 신뢰와 존중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IB프로그램, 국제교류수업 등으로 공교육을 다양화·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 한

전북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한 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전북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장 신년사>

“경제 도약 이뤄 전라도 수도로 나아갈 것”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을사년(乙巳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떠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새로운 희망과 꿈이 샘솟는 새날의 시작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아직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지만, 흑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워내는 인동초처럼 대한민국은 반드시 새 희망의 싹을 틔워낼 것입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지방시대의 주역으로서 전주의 큰 꿈을 이뤄내기 위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어왔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국 혼란 및 소비침체, 재정 악화 등 민생경제는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전주의 기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전주대변혁의 신호탄이 될 MICE 복합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팔복동 산업단지의 3천여 규모 국가공모사업 선정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선정, 영화영상산업의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대전환의 틀을 튼튼히 쌓아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전주의 기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민선8기 전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전주대변혁의 비전과 계획을 차근차근 실현해 가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은 어려운 길일지라도, 20년, 30년 후 성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도 예비비를 사용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위대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주 경제의 확실한 도약을 이루고 당당한 전라도의 수도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의회,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긴급 대책회의 열어

의정대표협의회의,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3,20m호 확장해야” 강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지난해 30일 의정실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등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심리지원에 나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 행사 자체를 당부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30일 의정실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문승우 의장과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운영위원장, 각 상임위원장, 서난이 대변인 등 의정대표협의회의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보낸다”라며 “추후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정대표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과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에게 기본계획상 2,500m인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이에 대해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수요 증대 방안을 마련한 뒤 국토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장단과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청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분향했다. /김관 기자

서난이 도의원, 도 식품사막 현상 전국 상위권...적극행정 필요 강조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회(대표 서난이 의원) 지난해 27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식품사막 해소 정책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 및 정책 자문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군산대 최한별 교수가 맡아 도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주민들이 겪는 식품 접근성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군산대 최한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송준호 전북대 교수,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문수 농민신문 기자, 백영규 전북광역시활성센터 센터장, 김석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정성이 도 농촌사회활력

과장, 박장석 도 사회복지정책과장, 오태수 도 축산물위생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최 교수는 발제에서 “식품사막 문제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교통인프라, 사회적 지원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내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 전략과 연계해 다각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정토론에선 백영규 전북광역시활성센터의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지역광역시활성센터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발언이 큰 관심을 받았다. 서난이 도의원은 “전북의 식품사막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식품사막화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사막은 신선식품과 같은 필수적인 식료품을 근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 생기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문수 농민신문 기자, 백영규 전북광역시활성센터 센터장, 김석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정성이 도 농촌사회활력

특히 지정토론에선 백영규 전북광역시활성센터의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지역광역시활성센터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발언이 큰 관심을 받았다. 서난이 도의원은 “전북의 식품사막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식품사막화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관 기자

전북도, 재난지원금 21억, 이달 피해 도민 지급 완료 목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대설·강풍·풍랑의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피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이달 지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했으며 특히 진안군(30.3cm), 장수군(26.9cm) 등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습설이 집중적으로 내려 피해를 키웠다. 이로 인해 도내 8개 시군에서 972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은 약 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피해액(4천5백9억)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공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사유시설 피해 대부분은 인삼재배시설 86.4ha, 비닐하우스 파손 6.4ha, 축사 13개소, 수산증양시설 62개소 등 농축수산 분야에 집중됐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구 예산 21억 원을 확정했으며, 지원금은 국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된다. 도는 국비 간주예산, 추경 성립전 편성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도 예비비를 사용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북 도내 평균 적설량은 6.3cm를 기록

했으며 특히 진안군(30.3cm), 장수군(26.9cm) 등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습설이 집중적으로 내려 피해를 키웠다. 이로 인해 도내 8개 시군에서 972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은 약 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피해액(4천5백9억)의 약 1.4%에 해당하는

복구 예산 21억 원을 확정했으며, 지원금은 국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된다. 도는 국비 간주예산, 추경 성립전 편성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도 예비비를 사용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은 어려운 길일지라도, 20년, 30년 후 성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도 예비비를 사용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준호 기자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行 不 由 徑

다닐 행 아닐 불 말미암을 유 지름길 경

행불유경 길을 가는 데 지름길이나 뒤편길을 취하지 않고 큰길로 간다는 뜻으로, 행동을 공명정대하게 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완주군의회 Wanju County Council

우범기 전주시장, '무안공항 사고' 지원 총력

시청 재난안전실서 관련 실국장 참여 긴급재난안전회의...제야행사 대신 애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주시가 긴급 대응회의를 열어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대형 참사에 따른 수습과 애도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로 예정됐던 제야행사도 취소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전주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 대응회의를 열고 "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달라"며 "제야행사를 기다린 시민께는 송구하지만 큰 슬픔을 겪는 유가족을 배려하고 아픔을 나누기 위해 행사 대신 애도 기간을 갖자"고 밝혔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사고 현장 부

와 긴밀히 소통해 전주시 연구자 등을 지속해서 확인하는 한편 사망자 확인 시 1대 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경제적, 정신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사망자 확인 시 장례 지원과 시민안정보험 및 재난지원금 등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31일 전주 시청 앞 노숙광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제야행사도 전격 취소했다.

우범기 시장은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고 부상 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전주시도 연말연시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충실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주시가 긴급 대응회의를 열어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 '마을돌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 안정적 돌봄서비스 제공

전주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2024년 마을돌봄 사업' 기관 및 단체 부문 유공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마을돌봄 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용해 아동들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전주시 69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1800여 명 돌봄아동을 촘촘하게 지원해 왔으며,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권리 향상에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지원과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수상은 전주시 아동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2036 하계올림픽 현장평가 대응유치 자문회의 개최

현장 평가 앞서 도내 체육계 교수연구진과 유치 논리 보강과 전략 논의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12월 30일 2036 하계올림픽 현장평가에 앞서 유치 성공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이장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평가 리허설, 예상 질의 답변, 유치 논리 보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주교대와 전북대 등 도내 체육학

과 교수진 10여 명이 자문회의에 참가해 올림픽 유치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에서는 올림픽 유치 과정에 대한 간략한 개요 설명에 이어 현장발표 리허설이 이뤄졌으며, 리허설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자문회의에 참가한 교수진들은 전북의

올림픽 유치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아끼지 않았으며, 유치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의 지지도가 성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 평가하며, 도민 역량 결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진행된 자문과 논의를 활용해 이달 초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의 현장평가에 대비해 전북의 올림픽

유치 논리를 보강하고 유치 전략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장석 국장은 "격의 없는 조언과 자문을 해주신 교수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열원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민정 기자

전주시, '친절안전기사' 버스기사 10명에 시장 표창 수여

안전운전,따뜻한 배려로 시민들에게 감동 전해...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

전주시가 평소 안전하고 친절한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앞장선 시내·마을버스 운전원들을 격려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2024년 하반기 시내·마을버스 친절안전 기사'로 선정된 고병영(성진여객) 씨 등 10명의 버스운전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선정은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평가, 전주시 누리집 및 콜센터 등을 통한 시민 제보, 탑승객증,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졌다.

평소 안전한 버스 운행과 친절하고 고객 응대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높여온 지난해 하반기 시내버스 친절 안전기사는 ▲고병영 ▲최정인(이상 성진여객) ▲이재훈 ▲정원영 ▲최정훈(이상 전일여객) ▲곽은호(제일여객) ▲모성기 ▲육근형 ▲임철훈(이상 호남고속) 9명이 선정됐으며, 마을버스는 김주성 씨(전주 시실관리공단)가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수상 기사들은 승객의 분실물을 직접 찾아가 전달하거나, 차비가 부족한 초등

학생 승객에게 도움을 주는 등 따뜻한 사례를 통해 시민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시는 표창과 더불어 수상자들에게 친절안전기사 명찰과 엠블럼 패치를 제공하고, 전주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50%의 요금감면 혜택을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소속 버스회사들도 친절안전기사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친절한 운전사례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현장 경험

을 담은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74명의 운전원을 친절안전기사로 선정하는 등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대중교통 서비스 문화 정착에 힘써왔다.

백미영 전주시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표창이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시민 편익 증진·지역 발전 기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견본세대 측정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인정...특별휴가·인센티브 부여

전주시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총 5건을 선발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5건의 우수사례는 각 부서에서 추천한 총 17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온라인 시민 투표와 발표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심의 결과 최우수 사례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견본세대 측정 제도 도입(개인 부문)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사례(팀 부문)가 각각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견본세대 측정 제도'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검사의 개선 사

례이다.

현행 제도는 공사 준공 검사 직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는 사후 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층간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일부 세대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우선 시공하고, 성능 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모든 세대를 공사하도록 하는 견본세대 측정제도를 도입해 성능 검사의 실효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사례는 팔복동 공업지역의 과도한 규제 완화로 환경오염이 적은 일반공장·제조시설 투자 및 생산 활동까지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제한 사항은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

과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만성지구의 내대지로 방치된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해 활용도를 높이고, 일부를 주차장 용지로 결정해 지역 주민의 편익을 높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로는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한 '전주시-베트남 경제교류 추진' ▲적극적인 주민 소통과 설득을 통해 이끌어 낸 '소규모 행정동(금암1·2동) 통합'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고, R&D 지원사업을 통해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 '바이오기업 유치 및 바이오산업 기본구상 수립'이 장려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발된 공무원과 팀에는 표창 및 포상, 국외연수선발 가점,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

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전주 함께라면 ▲대한민국 기회발전특구 지정 ▲마을버스 확대 도입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 개방 ▲전주 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총 5건이 선정된 바 있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제1호 환경교육 시범도시 정읍시 지정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공모한 결과 정읍시가 선정됐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환경교육 시범도시란 환경교육 활성화와 의지가 있는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환경교육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정읍시는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으며 주민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시범도시 운영 계획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모두가 자연과 소통하는 생태 시인! 건강한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9대 과제를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환경교육 강사 양성 확대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제시해 교육 환경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3년간(2025~2027) 도비 약 3억 원을 투입하고 컨설팅과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교육 시범도시 운영은 지난해 27일 시행되는 '전북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성장경쟁력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2조에 의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호남권 최초 '환경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교육 도시는 19개소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환경교육 시범 도시 지정 확대를 통해 시군 관심도를 높이고 모범적인 환경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순욱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환경교육 시범도시 운영을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도민들이 환경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불교대학, 엄마의 밥상 아동 위해 2백만원 기탁

(사)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규)은 지난해 12월 29일 '엄마의 밥상'을 기념해 전주시에 2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주시 엄마의 밥상 대상 아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백준기 (사)부처님세상 이사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이웃에게 희망과 행복을 나눌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년 소중한 나눔의 온정을 베풀어주시는 전북불교대학에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해주시신 성금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8년 개교한 전북불교대학은 호남 최초의 불교대학으로, 시민강연회와 인문학특강 등 질 높은 강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6년간 전북지역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도, 노로바이러스 검사...지하수 20개소·어린이공원 30개소 결과 '안전'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지하수와 어린이 공원 위생 환경을 점검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모두 불검출돼 안전한 환경임이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

소, 휴양시설 등 총 20개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와 잔류염소 농도를 검사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적합 판정을 받아 식중독 예방과 지하수 안전성을 입증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어린이공원 30개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며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놀이기구 손잡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모두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저온 환경(약 15°C 내외)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으며, 오염된 지하수는 집단급식소를 통해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수적이다.

/정소민 기자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지난 해 부동산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 부채 관리' 속에서 지역별, 주택 유형별, 계층별 양극화의 심하게 발생했다. 연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1.10 공급대책'을 시작으로 '청약 제도 개편', '저출생 해결 대책'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주로 발표됐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심화로 청약 열기는 뜨거워졌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 반영되면서 매수 심리는 더욱 증가했다. 반면에 가계 부채 또한 늘어나자 정부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 등을 통해 부채 총량 관리에 나섰다. 올해도 꾸준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가계 부채를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알아본다.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 받는다. 이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중부세는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애인 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인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는데,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이다.

만 원(전용면적 84㎡ 기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준공한지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현행 재건축 절차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할 수조차 없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 전자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토록 해 의사결정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담대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단 내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에서 2.5억 원까지 3년간(25~27년) 추가 완화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단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 원)과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 대출 한도 3억 원) 및 자산 요건(구입자금 자산 4.69억 원 이하, 전세자금 자산 3.45억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시행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데,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주택 건설 위주라 도시 내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으로 인해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즉,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간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간다.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복원한다.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20년 8월 폐지됐던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재도입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과의 세제형평성을 감안해 임대무기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상향한다.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인 수도권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디딤돌대출 후 취담보 가능(6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24년 12월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5500만 원 줄어든다. 다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24년 12월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 중에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6월 30일)까지만 경우 후취담보대출(미등기 아파트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02년부터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를, 국토교통부는 지난 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별도로 운영해왔다. 각각 운영되던 인증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제출서류 간소화는 물론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20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중개 광고 시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를 비롯한 부동산 중개 광고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의무화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돼 있는 건축물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시 확인실명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수요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등에도 표시하도록 개정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한다.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친환경 건설 기준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적용돼 오고 있지만, 내년 6월부터는 기준이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다는 점이 골자다. 기존에는 1차 에너지(수력·화력·원자력 등)로 얻는 전기를 연간 1㎡당 120kwh이내로 써야 했지만, 새 기준은 100kwh이내로 써야 해 기준이 17%가량 강화된다. 나머지 전력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현관문과 창호의 기밀 성능(실내 공기가 밖으로 새는 것을 최소화하는 성능)은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기준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 비용이 가구당 약 130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실시(7월)·스트레스 금리는 1.5%p(25년 예상)다 ▲주택드림대출 출시·연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최준호 기자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 시 세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는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이에 업무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반영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고,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

련했다. 둘째, 2024년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대전에서 그간 도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 현재 3,6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중이며, 그 간 어려운 도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연속 관리임대주택 대상 6억 원 이상의 임대료 및 144억 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감면해 무주택 도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업을 통해 가스유출 차단 시설인 타이머 콕 1,087건을 임대주택에 설치해 안전한 주거 환경 마련에도 크게 힘 쓴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을 위한 중장기 플랜 수립으로 개발공사 미래 핵심 동력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북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도내 14개 시군 협의체인 지역개발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개발의 선봉장이 되어 신규사업을 포함 총 33개, 3조 3천억 원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최정호 사장은 "1년 9개월간 씹없이 공사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했고 그간의 노력은 개발공사라는 큰 나무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하며, 저를 이을 다음 사장이 그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국민연금공단 인사 (2025 1. 1일자)

《개방형직위 임용》
△디지털혁신본부장 조영훈

박관복 △처인기흥지사장 채수현
△수지지사장 조정훈 △안양과천

《본부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전보》

김태호 △안산지지사장 김미옥 △광명

△기획조정실장 이기성 △경영지 원실장 김진만 △안전관리실장 박경민 △연금급여실장 최정윤 △고객지 원실장 최재용 △국제협력센터장 김문석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한효정 △노후준비지원실장 배봉희 △기초연고센터장 우정주 △운용지 원실장 김석주 △자금관리실장 김석영 △디지털전략실장 이정수 △정보 지원실장 류길현 △미래기획단장 정순희 △서울남부지역본부장 허강은 △경인지역본부장 안홍식 △광주지역본부장 설명진 △대구지역본부장 장은경

△수지지사장 이민수 △시흥지사장 원은영 △남동연수지사장 이상욱 △서인천지사장 우흥택 △서대전지사장 이숙영 △북대전지사장 이기남 △동청주지사장 유준선 △육천지사장 정광문 △충주지사장 국경화 △공주부여지사장 정필세 △천안지사장 이수택 △아산지지사장 정종태 △예산홍성지사장 최영운 △서산태안지사장 김영무 △동광주지사장 김영규 △북광주지사장 홍은주 △전주완주지사장 정정창 △진안지사장 유인광 △익산군산지지사장 김기범 △순천지사장 정정태 △여수지사장 민경근 △나주시지사장 박상식 △해남지사장 김성태 △서귀포지사장 허현숙 △동대구지사장 신정호 △대구수성지사장 이돈하 △경산청도지사장 이범석 △포항지사장 김준수 △영주봉화지사장 민운식 △구미지사장 최복효 △중부산지지사장 김준호 △서부산지지사장 정상준 △북부산지지사장 배창수 △부안산지지사장 이중규 △동부산지지사장 권혁일 △남양주산지지사장 박기철 △창원지사장 정윤경 △마산지지사장 전태용 △김해밀양지사장 하영란 △진주지사장 노인호 △거창지사장 박종열 △홍천지사장 신정규 △원주지사장 장예심사센터장 박춘경

《지사장 전보》

△강동하남지사장 김성호일 △서초지사장 박신규 △관악지사장 이필성 △동작지사장 정영호 △영등포

△강동하남지사장 김성호일 △서초지사장 박신규 △관악지사장 이필성 △동작지사장 정영호 △영등포

지사장 박종필 △춘천지사장 최동식 △홍천지사장 신정규 △원주지사장 장예심사센터장 박춘경

△강동하남지사장 김성호일 △서초지사장 박신규 △관악지사장 이필성 △동작지사장 정영호 △영등포

지사장 박종필 △춘천지사장 최동식 △홍천지사장 신정규 △원주지사장 장예심사센터장 박춘경

△강동하남지사장 김성호일 △서초지사장 박신규 △관악지사장 이필성 △동작지사장 정영호 △영등포

지사장 박종필 △춘천지사장 최동식 △홍천지사장 신정규 △원주지사장 장예심사센터장 박춘경

〈권재한 농촌 진흥청장 신년사〉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식품산업 가족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전국의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우리 농업과 농촌 현장을 지켜 주신 농업인, 그리고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농업·농촌이 마중해야 할 여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업인구 고령화와 농촌 소멸이라는 현실 속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술 혁명의 한복판에서 디지털,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융합되면서 농업을 포함한 산업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환경 대변화, 기술 대전혁의 시대에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농업·농촌으로 성장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해 말 농촌진흥청은 그간의 핵심사업을 재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첨단기술 융합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농촌진흥청은 혁신방안의 핵심내용인 '정책지원·현안해결 10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전국의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 디지털 대전환과 바이오경제 시대에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더욱 속도감 있는 변화와 혁신 노력을 해나갑니다. 농업 외 타 분야 첨단기술과 융복합을 활성화하는 개방형 연구개발(R&D)과 기술보급 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육종,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로봇, 그린바이오 등 첨단 산업 기술의 농업적 활용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을 구분하지 않고 분야별 국내외 최고 전문가와의 양자·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식량안보 등 국가 임무를 강화하고 로봇, 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조직을 개편합니다. 연구직 채용을 민간 개방형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융복합 연구를 위한 AI, 컴퓨팅, 물리 등 타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채용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 1년 9개월간의 원대한 계획 마무리



무부지사를 역임하며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여 개발공사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째, 자본금 부족으로 도 정책사업과 다양한 공익사업 확대에 한계를 깨닫고, 취임 즉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 도의회에서 500억 원 자본금 증자에 대한 의결과 더불어 2024년에 200억 원의 증자를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국가 첨단 산업단지(2개소)에 참여할 수 있는 재무여건과 인구소멸 및 농어촌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반할주택 500세대'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전라북도 정

련했다. 둘째, 2024년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대전에서 그간 도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 현재 3,6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중이며, 그 간 어려운 도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연속 관리임대주택 대상 6억 원 이상의 임대료 및 144억 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감면해 무주택 도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업을 통해 가스유출 차단 시설인 타이머 콕 1,087건을 임대주택에 설치해 안전한 주거 환경 마련에도 크게 힘 쓴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을 위한 중장기 플랜 수립으로 개발공사 미래 핵심 동력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북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도내 14개 시군 협의체인 지역개발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개발의 선봉장이 되어 신규사업을 포함 총 33개, 3조 3천억 원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최정호 사장은 "1년 9개월간 씹없이 공사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했고 그간의 노력은 개발공사라는 큰 나무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하며, 저를 이을 다음 사장이 그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개발공사 제11대 최정호 사장은 2023년 3월 20일자로 취임한 이후 지난 해를 끝으로 약 1년 9개월간의 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여정을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전라북도 정

전북대생들, 한-아프리카 협력 방안 제시

한-아프리카 청년포럼서 김주현 학생 '청년 단체 기금 모금 장벽 극복 방안' 제시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학과와 남주희·김주현 학생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청년포럼'에 참여해 아프리카와 한국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두 학생은 앞서 알제리에서 열린 '범아프리카 청년포럼'에 참가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포럼에 패널로 활약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번 한-아프리카 청년포럼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요리하다'를 주제로 한-아프리카재단, 교육부, KOICA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서는 국제기구 진출 사례와 방법, 범아프리카 청년포럼 참가자들의 경험담 공유, 협력 방안 발표 등이 진행됐다. 또한 한아프리카재단 김영채 이사장의 축사, 차바 루안야 주한 탄자니아 대사 부인의 기조연설, 짐바브웨 출신 셰프 니콜라 카고르의 아프리카 비건 요리 시연이 이어졌다.

김주현 학생은 범아프리카 청년포럼 참가 세션인 '교육, 건강 및 웰빙, 청년



전북대 프랑스아프리카학과와 남주희·김주현 학생이 '한-아프리카 청년포럼'에 참가했다.

역량 강화'를 요약 발표하며 청년 단체 기금 모금 장벽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 이니셔티브 개발, 자립 교육과 모니터링, 청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청년 단체와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김주현 "국제기구 진출 절차에 대한

발표가 앞으로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짐바브웨 셰프의 요리 시연을 통해 아프리카 음식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한국과 아프리카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또한 남주희 학생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국제기구 취업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며, "차바 루안야 대사 부인의 연설에서 쌀을 활용한 한국과 동아프리카의 공통점을 이야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두 학생은 이번 포럼을 통해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며 아프리카 각국 청년들과도 네트워킹할 기회를 가졌다. 특히 김주현 학생은 패널로 참여해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조화립 전북대 국제처장은 "두 학생은 이번 포럼에서 얻은 경험과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분야에 진출해 한국과 아프리카 협력을 위한 차세대 전문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주대·단국대, 인문사회인재양성 맞손

융합인재양성사업 교육·학술 교류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단장 이용욱, 이하 HUSS사업단)은 단국대학교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단장 장세원, 이하 HUSS사업단)과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율곡기념 도서관 105호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전주대와 단국대가 함께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두 대학교는 향후 ▲공유대학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공동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공동 교육과정 공유 및 공동 운영 ▲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전주대 이용욱 HUSS사업단장은 "인문사회 기반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주대와 단국대가 교류 협정을 맺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하며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과 인적 교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천호준 교수, 한국체육사학회 '우수 논문상'



우석대학교 (총장 박노준)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천호준(스포츠지도학과)(사진)교수가 한국체육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동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천호준 교수는 "제자인 김동수 전주교육대 조교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큰 상으로 이어져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 수행과 인재 양성에 더욱더 매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황의경의 삶과 한국 아마추어 복싱의 역사'라는 논문을 통해 우수 논문상에 이름을 올린 천호준 교수는 한국 아

마추어 복싱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깊이 있게 서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이 논문은 한국 아마추어 복싱의 역사와 그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준 교수는 "제자인 김동수 전주교육대 조교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큰 상으로 이어져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 수행과 인재 양성에 더욱더 매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준 기자

전북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사례집 발간

도교육청-농촌진흥청 업무협약 체결... 초·중·고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험활동 적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역 내 폐교재산의 활용사례와 현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폐교 활용을 고민하는 시·군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됐다.

사례집에는 자연·문화 여건과 입지 조건을 활용해 폐교를 교육기관,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전환한 33건의 활용 사례를 담았다.

실제 만성초등학교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군산의 월명초등학교는 청소년자치배움터 자원으로, 이리남중학교는 익산외국어교육센터 등으로 활용되고 있

다. 특히 폐교의 기본정보부터 주변 환경의 장단점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항공사진을 포함해 구성했다.

전북교육청은 폐교 활용사례집을 지자체, 지역주민과 적극 공유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사례집이 폐교

를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폐교가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지역주민의 추억과 역사를 간직할 소중한 장소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2025년 1월 15일까지 공문 제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찾는다.

전북교육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적극행정으로 일하는 직장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교원·교육전문직원, 5급 이상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기관 또는 부서 등으로 18명(팀) 이내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규제혁신, 민

원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협업, 행정효율 향상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달성한 사례를 내년 1월 15일까지 공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범정부 경진대회, 교육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사례 및 수상 예정 사례는 새로운 성과가 명확하게 있지 않을 시에는 제출 불가하다.

전북교육청은 제출된 사례에 대해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40%), 수요자 체감도(30%),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20%), 확산 가능성(10%)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내년 2월 중 최종 수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발되면 등급에 따라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홍열 감사관은 "우수사례 발굴로 적극행정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여객기 참사 애도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7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전북교총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참사로 탑승자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

함으로 모든 교육자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전주 A초등학교 학생 일 가족을 비롯한 도내 6명의 희생자 소식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등은 참사에 대한 재난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해 빈틈없는 후속 조치로 두 번 다시 우리 사회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교총도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하고 회복 지원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기전대,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전북 사랑 겨울' 운영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진) 국제협력처 한국어문화교육원은 30일 본과 진학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 150여 명을 대상

으로 도내 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한 '전북 사랑 겨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북 사랑 겨울' 프로그램은 국내에

서 대학 지학을 목표로 한국어 연수를 받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지역호감도 상승 및 도내 대학으로의 진학과 지역정주가 목적이다.

본 프로그램은 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도내 취업 정주가 가능한 기업 탐방 및 직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목표를 확립하고 도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최정민 기자

2025 謹賀新年 전주페이퍼

전주페이퍼가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55년동안 신문출판용지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전주페이퍼가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해 신문, 책, 포장 박스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종이를 생산하는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나아갑니다.

<신년사> 和合同進, 우리들의 군산을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로 변화를 이끄는 푸른 뱀의 해에는 행복만 일들만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혁의 거친 물살에 맞서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지방소멸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부시장 직속 인구대응담당관을 신설하여 5대 전략 17개 중점과제 97개 세부사업을 통해 키움 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에 시정역량을 모았습니다.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공공 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를 활성화하고 전북 최초로 중고등학교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한 결과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동반성장을 이끌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이차전지, 수산식품 분야 등 19개사, 1조 2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전기가 부품소재 분야의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지역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강소 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산문화재단> 출범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및 문화에 관심을 입힌 우리 시민의 특색있는 융복합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방침은 200년 만의 기록적 폭우에도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처로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과 <가스안전관리>분야 최우수상 등 총 21개 분야의 크고 작은 수상 경력으로

군산시의 행정역량이 대외적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뼘 한뼘 이룬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변화없는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5년도는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로 격변의 한해가 예고되고 있지만, 전례없는 도전과 기회도 있다는 마인드도 새로운 희망의 싹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한해 꼭 이루어내야 할 핵심 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더 큰 군산, 더 위대한 군산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특례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적극 활용하여 키움 으뜸 가족행복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신산업 및 문화관광 거점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확보한 1조 2천억원의 국가 예산을 발판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민생을 튼튼

히 되살리는데 온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으뜸 도시에 정진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인구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출생에서 교육, 취업과 창업, 그리고 청년지원, 정주의 선순환 등 지역과 대학의 혁신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늘봄센터, 수영장 등 생활SOC를 조성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첨단산업과 에너지신산을 창출하겠습니다.

신산업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도모하고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군산새만금미래성장센터,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등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강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가정과 기업에 저렴한 전력을 제공하고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글로벌 물류허브가 되겠습니다.

새만금을 이끌어가는 도시답게 시장 직속의 새만금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적극 대응하고 선점하는 한편,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원 포트(ONE-PORT) 전략과 철도와 항공을 연계한 글로벌 물류허브를 조성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통관장을 거점으로 한 복합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농수산업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전략 원예작목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첨단 원예복합단지 조성하고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 단지를 통해 김 육상양식 개발로 미래 수산식품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로컬콘텐츠를 기반으로 골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는 군산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배달의명수, 안심물가제 등을 통해 지역업자를 두텁게 지원하여 골목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여섯째, 군산다운 체류형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고군산 해양관광에서 원도심 근대문화관광을 잇는 체류형 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개장하고 월명산전망대를 대표적인 랜드마크 자리매김시켜,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봄철 <공당보리 축제>를 시작으로, 여름에는 <수제맥주 축제>와 <군산야행>, 가을에는 대표 축제인 <시간여행축제>에 이어 <팜봉축제>까지 사계절 익사 이팅 축제를 펼쳐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온기를 더하겠습니다.

일곱째, 재난재해 제로도시를 달성하겠습니다.

도심 상습 침수지역의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유출 저감, 재해위험 개선, 풍수해생태권 정비 등 빈틈없는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산단 거점별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과 화학사고 예방시스템 가동으로 사전 예방적이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시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힐링도시가 되겠습니다.

도심 폐철도 자원을 활용한 <철길숲>을 개방하여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월명공원과 은파호수공원을 잇는 산책로를 연결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선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 응급환자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신속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해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군산의 미래를 위한 밝은 가능성을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강한 결속을 바탕으로, 모든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으며,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차고 밝은 <우리들의 군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정혁신과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군산시장 강임준

익산시, 새해사자성어 '반구십리(半九十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



익산시가 2025년 시정 운영의 길잡이가 될 사자성어로 '반구십리(半九十里)'를 선정했다.

익산시는 새해 사자성어에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20일 밝혔다.

반구십리(半九十里)는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이 구십 리에 이르러서도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시는 이번 한 해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 선정, 도내 최초 민간 특례 도시공원 3곳 완공 등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려며 '위대한 도시 익산'의 저력을 보여줬다.

또한 ▲다리로움 누적 발행액 2조 원 돌파 ▲도내 최대 수준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명품 아파트 공급과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확대도 정주 여건을 개선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아울러 신청사 개청과 함께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선포해 익산만의 비전을 제시했으며 '한(韓) 문화 발상지'라는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한문화대전을 부활시키고 시민의 날을 개편 절로 변경해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선정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선정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착공으로 식품·바이오 산업 선도 도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의미가 남다른 한 해를 보냈다.

시는 전방위 노력의 결과로 2년 연속 국가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만큼 이러한 굴직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해에도 ▲KTX 익산역 확장 ▲백제왕도 경관 회복을 위한 국도 1호선 일부 구간 지하화 ▲산복천 개선 복구 등 역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2025년에는 반구십리의 마음으로 목표했던 사업들을 단단히 마무리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 익산의 눈부신 발전과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신년사>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익산시와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요와 다복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익산시는 오랜 시간 염원해 오던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54년 만에 신청사를 개청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최초의 민간특례사업 추진,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의 선정 등으로 익산시가 가진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25년에도 찬란한 역사를 품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시, GREAT 익산'의 대도약은 계속됩니다.

도심 속 자연을 품은 녹색 정원을 만들고, 익산만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한(韓)문화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는 도시를 이루고, 신산업 및 전북권 광역경제권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변화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 1. 1

익산시장 정 현 울

다음에서 전북타임스신문을 검색 해 보세요



<정읍시 2025 1월 정기인사 내정 발표>

정읍시가 2025년 정기인사 내정자 최종 64명을 지난해 26일 발표를 했다. 이번 인사

의 방침은 퇴직준비교육,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시정업무 각 분야에서 열정과 추진력,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재 를 등용하기 위함이라고 정읍시는 밝혔다.

승진인사기준은 ▲승진후 보자명부 선 순위자 ▲경력기 피업무 장기 근무자 우대, 분청 근무자 우대 등 ▲배수 이내 자 중 직무성과, 경력, 업무 추진능력 등 고려 ▲타 직렬과 비교하여 승진직제가 있는 소수직렬 배려 ▲적극행정 및 행정실적이 우수한 자로 정했다.

4급 : 4명 [행정4] 일자리정책과 김진옥 사회복지과 고정희

교통과 최준양 태인면 손문국

5급 : 10명 [행정6, 사회복지1, 공업1, 시설1, 농촌지도관1]

기획예산실 김희정 감사과 안용운 지역활력과 유경희 재난안전과 김미영 교통과 정태옥 상하수도사업소 모진영 사회복지과 박순배 회계과 고준석 도시과 이익현 농촌지원과 하현준

6급 : 15명 [행정6, 세무1, 전산1, 사회복지1, 공업1, 농업1, 간호1, 보건진료1, 시설1, 농촌지도사1]

기획예산실 유진형 감사과 김정태

총무과 이재훈 문화예술과 송연 미래산업과 김태한 도서관사업소 송승학 회계과 유상만 정보통신과 변동산 노인장애인과 김오영 시민소통실 박석희 축산과 양규덕 보건위생과 문명옥 샘골건강센터 김보라 민원지적과 김희곤 소성면 오성희 직위승진

7급 : 14명 [행정4, 세무1, 사회복지2, 사서1, 공업1, 보건진료1, 시설1, 방재안전1, 운전2]

기획예산실 이진주 문화예술과 강미라 관광과 신선혜 환경정책과 이준후 세정과 박지훈 여성가족과 박은선

노인장애인과 황미선 도서관사업소 소영휴 농촌지원과 이한용 샘골건강센터 문창주 건설과 김승진 재난안전과 장난성 자원순환과 김윤찬 자원순환과 차현우

8급 : 21명 [행정7, 세무1, 전산1, 사회복지2, 공업2, 농업1, 녹지1, 보건3, 시설1, 운전2]

시민소통실 박준우 동학문화재과 김종식 일자리정책과 나성우 미래산업과 김현호

인재양성과 홍찬우 건설과 정성현 농업정책과 오동근 세정과 최정우 정보통신과 김병옥 사회복지과 한소이 여성가족과 박근형 재난안전과 김경선 자원순환과 정민 축산과 이창룡 산림녹지와 김다희 보건위생과 김도영 건강증진과 김진주 상하수도사업소 송기용 자원순환과 전정주 건설과 정현준

/정읍=김정민 기자



기업하기 좋은 김제, 인·허가 신속처리 ‘호응’

한우물 등 6개 기업 공장설립승인 등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운영, 투자기업 만족도 높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기업하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공장설립승인 등 공장 등록 인·허가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운영해 투자기업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은 단장인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을 필두로 투자유치과를 비롯해 청소지원과, 도시과, 건축과, 간섭과 등 공장 인·허가 관련 부서로 구성됐으며, 법적처리기한 대비 보완사

항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공장등록 인·허가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시가 추진한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본 기업으로는 김제시 주요 투자기업인 농업회사법인(주)한우물(이하 한우물) 등 총 6개의 기업이 있다.

특히 한우물은 지난 2023년 11월 김제시와 공장증설 투자협약을 맺은 후, 지난해 7월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공장증설승인을 요청했는데, 상기 기업의 경우 개별입지, 소규모해제영향평가 등 의제처리과정에 상당시간 소요가 예상됐음에도, 시의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통해, 법정기한보다 더 빠르게 공장증설 허가가 승인돼 기업 측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옥 부시장은 “관내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통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행정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신년사〉 “위민의정 의미 실천하며 정진할 것”

2025년 을사년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와 재성, 성장의 상징인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 여러분께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난해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의 침체와 농산물 가치 하락, 급격한 인구 감소, 그리고 정치적 혼란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김제시민 여러분의 불굴의 의지와 연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의 원천이 돼주었습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김제시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2명의 시의원들은 전문성과 집단의 지혜를 결합해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



서백현 김제시장

올이겠습니다.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소통과 존중의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를 정립하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제시의 미래와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 꽃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명의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지혜와 연대 속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맞이한 2025년은 제9대 고창군의회가 반란점을 지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상식과 원칙에 바탕을 둔 성숙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고창군을 만들어 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창군의회는 늘 열려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제안은 고창의 밝은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작은 바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책과 행정에 반영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창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기회 맞이하길”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고창군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뤘다는 데 큰 힘이 돼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환골탈태의 고통을 감내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푸른 뱀처럼 우리 군민들께서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기혁신을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많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을 마주한 해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우리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정 혼란은 물론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많은 국민들이 그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의회도 이와 같은 상황을 깊이 인식하며, 지역사회에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군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민규 고창군시장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명의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지혜와 연대 속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맞이한 2025년은 제9대 고창군의회가 반란점을 지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상식과 원칙에 바탕을 둔 성숙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고창군을 만들어 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창군의회는 늘 열려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제안은 고창의 밝은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작은 바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책과 행정에 반영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창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겨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진 피해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끈기와 연대는 부안의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2년 연속 예산 8000억원을 확보하며, 군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뜰썬니스타운’은 청년 인구 유입과 도심 재창조를 목표로 주거 공간과 정원 문화를 결합해,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확충의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을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에서 2년 연속 도내 1위를 달성한 우리 군은,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거, 창업 지원 등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군민 여러분께 더 크게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더 큰 희망을 품고 변화와 도전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2025년,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겨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진 피해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끈기와 연대는 부안의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2년 연속 예산 8000억원을 확보하며, 군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뜰썬니스타운’은 청년 인구 유입과 도심 재창조를 목표로 주거 공간과 정원 문화를 결합해,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확충의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권연현 부안군수

또한,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을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에서 2년 연속 도내 1위를 달성한 우리 군은,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거, 창업 지원 등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군민 여러분께 더 크게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더 큰 희망을 품고 변화와 도전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2025년,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겨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진 피해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끈기와 연대는 부안의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2년 연속 예산 8000억원을 확보하며, 군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뜰썬니스타운’은 청년 인구 유입과 도심 재창조를 목표로 주거 공간과 정원 문화를 결합해,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확충의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을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에서 2년 연속 도내 1위를 달성한 우리 군은,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거, 창업 지원 등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군민 여러분께 더 크게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더 큰 희망을 품고 변화와 도전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2025년,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창사랑상품권 20% 할인·한도 100만원까지 상향

고창군, ‘민생안정 소비진작 특별대책’ 마련...상품권 할인·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출 조기집행 등 경기 활성화 나서

고창군이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안정 소비진작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난해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사랑상품권 할인,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출 조기집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먼저, 카드형 고창사랑상품권을 1월 한달간 구매시 10% 선할인 적용하고, 사용액의 10%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원해 최대 20% 할인지원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출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

고 구매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해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1인당 3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줄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고창군 소상공인운전자금 대출” 역시 2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자금의 빠른 공급을 위해 전복신보 고창지점에서 상담 후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은 지금까지 읍면에서 분기별로 신청 접수해 적격 여부 심사 후 선정 통보하면, 대상자가

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용자 절차가 진행돼 필요자금 적시 제공이 어렵다는 불편 사항이 있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전년도 매출액 3억원이하)도 최대 30만원 지원을 올해에는 최대 50만원 지원으로 상향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 대책으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2025년 고창사랑상품권 선할인 특별할인 판매

1. 1. ~ 1. 31.

할인율: 상품권구매시 카드형 상품권 구매시 10% + 10% = 20% 할인

구매 한도: 월 70만원 → 월 100만원 (지류상품권 월 구매한도 30만원)

문의: 고창사랑카드 고객센터(064-1644-9760)

부안군,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 성과 ‘긍정적’

부안군은 곧 사업 마무리를 앞둔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공모에 선정된 매화풍류마을사업은 단순한 시설과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마을안내소는 매화풍류마을 초입에 자리잡아 외부 방문객들에게 지역을 소개하고 마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부안의 문화유산

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매년 방문객들이 매화풍류마을을 찾고 있다.

특히 부안 공예주간, 와인클래스, 청년 정기 모임 등은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와 경제의 융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매화풍류마을 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등과 연계해 부안이 지속 가능한 문화와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9만원서 11만원으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간 보존수당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도 단계적인 보존수당 인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도에 이어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시는 이번 인상에 따라 시비 3억 6,4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국가유공자 1인당 월 지급액을 기

존 9만 원에서 11만원으로 2만원 인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비 지원금을 포함해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는 월 15만 원, 그 외 대상자에게는 월 1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지역 내 보존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상생 중심지로

부안군은 부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난해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단순한 문화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 내며 부안의 지역 상권 활성화와 문화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2층과 3층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과 마실영화관은 다양한 지역 주민이 문화적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큰 인기를 끌며, 작년 대비 이용자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새만금도시과장은 “부안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문화와 상생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서는 ‘복컴이네 집들이’ 크리스마스 대형 트리 전시 및 소원 나무 이벤트’ 등의 행사와 더불어 2층 전시실에서 해오름유치원, 독립기념관 등 여러 기관을 초대해 작품 전시회를 개최해 기간 동안만 4천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2층과 3층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과 마실영화관은 다양한 지역 주민이 문화적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큰 인기를 끌며, 작년 대비 이용자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새만금도시과장은 “부안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문화와 상생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보고회 개최

고창군은 지난해 27일 향후 5년간의 생물권보전지역 보존과 발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열린 용역보고회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서 환경 및 생태 전문가 및 활동가, 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위원들이 참석했다.

고창군의 우수한 생태 자원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과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위원회는 주민주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생태관광지를 통한 주민 소득화 등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향후 5년간의 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문화원 제10대 조기환 원장, 제11대 이현곤 원장 취임

고창문화원은 지난해 27일 동리국약당에서 제10대 조기환 원장과 제11대 이현곤 원장의 문화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고창문화원 회원과 기관단체장, 문화예술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기환 원장은 이임사에서 “문화원이 지금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 취임한 이현곤 원장을 주축으로 임직원분을 비롯한 문화원 가족 여러분이 합심해 문화원을 잘 이끌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새로 취임한 이현곤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기환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창군이 문화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4년간 문화원을 이끈 조기환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 취임한 이현곤 원장님을 필두로, 고창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했다.

고창군은 지난 2013년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활동을 통해 지난해 7월에는 10년 간격으로 제출되는 정기보고서가 생물권보전지역 보전·발전 지원기금과 활동 이행 등의 MAB국제조정위원회 기준을 충족해 그 지위를 연장

받게 됐다.

오미숙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이번 용역보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통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이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잡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 작년 친환경농업 22억 지원

친환경 인증 필지 경작 농업경영체 대상...840농가 생산장려금·직불금 지급
소득 보전·저탄소 농업 실현...순창 유기농 인증면적 640ha로 전북 1위

순창군은 2024년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12억 7천만 원과 친환경농업 직불금 9억 8천만 원을 확정해 총 22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 농업업 활성화에 위한 지원책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업 실현을 목적으로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며, 작물별로 차등 지급된다. 논·밭의 경우 ha당 35만 원에서 70만 원, 과수는 70만 원에서 140만 원, 채소 및 특작 작물은 65만 원에서 13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은 순창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관내에서 친환경 인증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직불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인증 단계와 작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ha당 단가는 벼는



순창군은 2024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과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합친 총 22억 5천만 원을 지역 친환경 경작 농업인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160만 원에서 190만 원, 일반작물은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임산물(두릅·밤)은 50만 원에서 75만 원이다.

이번 친환경농업 장려금과 직불금은 신청서 접수와 현장 확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검증, 인증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840농가에 지급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어려움 속에서

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순창군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1,076ha로 전라북도 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유기농 인증면적은 640ha로 전체 인증면적의 60%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군 입대 청년에 입영지원금 20만원 지급

병역 의무 이행 독려...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남원시는 오늘부터 군에 입대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남원시 입영지원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남원시민의 입영 준비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영(소집) 예정인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한 남원시민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자이다. 신청은 입영통지서 수

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계존속 등 조건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대 연기를 하거나 실제로 입영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남원시 지역화폐인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남원지역 지역화폐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남원시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사업 시행 이후 현장 민원청취를 통해 지급 대상, 신청기간 등에 대한 미비점은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전북 유일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우수 지자체 선정

농식품부 선정 장려상...귀농희망 도시민 임시거주시설 '귀농인의 집' 운영 높은 평가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4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 가이드, 종합정보 및 교육정보 제공, 통합상담시스템 운영, 예비귀농귀촌인에 대한 안정적 정착지원 노력 등 6개 분야 14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군은 전국 6위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완주군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에 힘써왔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농촌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임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4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시거주시설인 '귀농인의 집'을 활발히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은 농촌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임시거주시설을 운영 중이다. 2024년에는 농촌 빈

집 리모델링을 통한 귀농인의 집을 3개소 추가 조성해 15개소를 운영 중이다. LH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한 귀농 행복주택은 현재 10개소가 조성돼 총 25개의 임시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남원시와 서울대학교 지역의료혁신센터는 지난해 12월 30일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 남원시 발전모델에 적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방향성 제시 및 사업방향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그간의 추진과정으로 24년 8월 20일 남원미래의료포럼 개최로 착수보고회 시간을 가졌고,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발표한 4가지 유형의 발제내용

을 바탕으로 2가지 사업(▲치매 인지기능평가 키오스크 실증사업▲ KB 오케아 실증사업)을 선정해 남원시 현장에 적용,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진행을 해왔다.

지난해 11월 6일에 중간보고회 시간을 통해 진행 과정 등 문제점을 점검했고,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진과 활발한 의견교환의 장이 됐으며, 이날 보고회에는 최경식 시장, 시의회 김영태 의장님 및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실증사

업 현장의 주축이었던 남원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연구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청취했다.

남원시는 최종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남원=정하복 기자

<신년사>

“시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시정 위해 도전”

최경식 남원시장 신년사

독자 여러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양 문화에서 백은 재생, 변화,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특히 푸른색은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하며 백과 결합해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예고하는 의미를 지니 새로운 시작과 성장, 그리고 도전과 변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한 푸른 백의 기운과 기백을 이어받아 을사년 새해에는 희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여러분 모두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이루시는 상스러운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국내외 전례 없는 불확실성으로 새해, 우리 삶이 녹록치 않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게도 어려움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과 위대한 시민성이 있습니다. 그 저력을 믿기에, 새해 저는 우리 8만 시민여러분과 1천 5백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민선 8기에 달려진 남원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도전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우리 시 전 공직자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도약하는 경제도시! 영호남·지리산권 교육거점 도시를 여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국립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군중산업거점단지 조성, 바이오 생태환경 구축, 산단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강소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더 활력 넘치는 남원을 만들고 정주개선을 통해 '더 머물고, 살고 싶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더 힘차게 뛰겠다는 말씀드리며 새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不忘初心...열정, 헌신 다해 군정 이끌 것”

최영일 순창군수 신년사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새로운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해 희망찬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올 한 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혁신과 시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북자치도는 주민 여러분의 봉사 의지와 정성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실제로, 순창군은 복지, 농업, 관광 등 각종 분야에서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모두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고, 항상 라는 사자성어를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순창군수로 취임하며 다짐했던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순창' 실현의 초심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순창의 전통문화와 자연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더욱 탄탄히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더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순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모두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고, 항상 군민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남원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60세이상으로 확대 실시

남원시는 올해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를 기존의 65세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60세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60세이상 남원시민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포진은 이전에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에 잠복돼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신경절을 따라 발진과 수포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연령층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대상포진 발생률이 높고 질병 이환 시 극심한 통증과 중대한 후유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방 및 증상 완화를 위해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관내 보건소(지소·진료소)에서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남원시 주민등록자 중 ▲60세이상 저소득층(65. 12. 31.이전 출생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세이상 시민(65. 12. 31. 이전 출생자)이다.

60세이상 저소득층은 생백신과 사백신 중 선택 가능하며 생백신은 무료지원/사백신은 70% 지원한다. 저소득층 외 60세이상 시민은 사백신으로만 접종이 가능하며, 유료접종으로 백신비만큼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대상포진 생백신은 기존에 국내에서 계속 사용돼왔던 백신으로 1회 접종으로 완료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상포진 사백신은 총 2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고가이지만 예방효과가 높고 지속기간이 오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단, 면역저하자나 임산자, 기존에 대상포진 생백신 접종을 했던 사람은 생백신 접종은 불가하며 사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지역대표예술단 육성' 발레 큰 호응...이달 '춤추는춘향' 공연

지난해 12월 27일, 28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인 이원국 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남원공연이 2회차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객석을 꽉 채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은 지난 12월 7일 '사랑의 세레나데'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선정작 두 번째 레퍼토리로 다.

한편 다가오는 1월 18일과 19일에는 춘향전을 모티브로 창작된 '춤추는 춘향' 발레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작품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발레 작품으로 춘향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한 만큼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연은 48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1만원이다. 남원시민과 단체는 50% 할인된 금액에 관람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풍산면 성마리오농장 2천만원 상당 흑염소 진액 기탁

순창군 풍산면에 위치한 성마리오농장(대표 김바오)가 최근 순창군청을 방문해 2천만원 상당의 흑염소 진액 150박스를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해달라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는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부로,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성마리오농장은 지난해 경남 고성에서 순창으로 이전했으며,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김바오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을 잘 챙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봉동 도시재생거점시설 2곳 개관... 본격 운영

완주군이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동창햇살장조센터와 만경강생태스포츠지원센터의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해 12월 30일 완주군은 봉동읍 구 터미널 자리에 들어선 동창햇살장조센터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군의회 의장,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다.

군은 지난 2017년 9월 선정된 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동창햇살장조센터 조성을 추진했다. 구 봉동터미널을 매입해 사업비 52억 3,4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325㎡의 규모로 건립했다.

만경강생태스포츠지원센터는 사업비 17억 9,300만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건축연면적 500㎡의 규모로 지난 8월 준공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옥정호·붕어섬 개장 2년만 132만명 방문

임실군 민선 8기 최대 역작 옥정호 출렁다리·붕어섬 생태공원 전북 특별자치도 대표 대한민국 관광지 등극

임실군의 민선 8기 최대 역작인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은 46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 이후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개장 2년여 만에 132만 여명이 방문, 전국적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군은 올해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에서 봄을 맞아 지난해 임실 옥정호 붓꽃축제를 처음 개최, 2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해 축제를 즐겼다.

4-5월에는 형형색색의 봄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며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가을을 맞이한 군은 전북자치도의 가을 대표 축제가 된 임실N치즈축제 일정에 맞춰 붕어섬 생태공원 일원에 국화를 배치하고,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코스모스, 구절초 등을 식재해 가을 경관 조성을 위한 준비에 공을 들였다.

이에 화답하듯 가을꽃들이 가지개를 켜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으로 버스 투어가 만원을 이루며 10월 한 달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의 수가 대략 10만여 명에 달했다.

겨울을 맞이한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은 겨울꽃인 꽃양배추를 식재하고 대형 트리과 산타 등의 조형물을 설치해 사계절 아름다운 붕어섬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이달부터 내달 28일까지 두 달여간 한파와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

기 위해 동절기 휴장에 들어간다.

휴장 기간 철저한 시설 점검과 환경 개선을 진행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임실 방문의 해인 올해 3월 중 재개장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로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할 것"이라며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은 봄과 가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서 천만 관광을 실현하는 요충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정해영 기자



군도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근고지영(根固枝榮)'의 자세로 2025년 군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민선 8기 동안 탄탄히 다져온 기반들이 본격적인 성장과 변화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으로 진안군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진안군의 밝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롱초롱 빛나는 일들이 가득하시길”

전춘성 진안군수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2025년 을사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초롱초롱 빛나는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진안군은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노력 덕분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61년 만에 전북도 민례절을 처음으로 유치하고 진안 흙산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 자연스레 나타나는 '수도거성(水到渠成)'을 보여줬던 해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단연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뿌리가 튼튼한 덕분에 우리는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에 진안

진안군민들, 삶 만족도 '최고' 14개 시·군 중 1위

삶에 대한 만족도·사회서비스 만족도·환경체감도 분야 중 6개 항목서 만족도 1위

진안군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진안군은 군민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서비스 만족도', '환경체감도' 분야 중 6개 항목에서 만족도 1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삶 부분이

7.1점(10점 기준)으로 1위, 지역생활 부문은 7.0점 1위, 행복(어제) 부문 6.9점 1위 등 3개 항목 모두 1위를 차지하며 14개 시·군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서비스 만족도 역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서비스 항목에서 55.0점(100점 기준)으로 1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항목에서 68.8점 1위, 환경체감도의 녹지환경 측면에

서 82.0점 1위로 조사대상 3개 항목 모두 가장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진안군이 군민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추진해 온 교육, 문화, 관광, 복지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특히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정비는 물론 광역상수도 공급 등 일상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분야에서 실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추진한 것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는 분석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2025년에는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가지가 번영한다는 뜻의 '근고지영'처럼 진안군의 뿌리인 군민들이 군에서의 삶을 만족하며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건강, 행복,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심 민 임실군수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성장과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가적 혼란과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어진 경제적 상황에서 더욱 출고 힘든 새해를 맞이하는 군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찾고, 머물고, 살고 싶은 천만관광 임실 실현을 위해 힘써 임실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맞춤형 사회복지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



2025년 새해에는 '천만관광 명품도시 이제 임실'이라는 비전 아래 관광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다양한 맞춤형 경제 시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맞춤형 사회복지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5년 새해, 군민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뤄지고, 건강과 행복, 기쁨과 풍요로움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주군, 서재영 부군수 이임식... “무주다운 무주 실현에 큰 보람”

황인홍 무주군수,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무주 실현 앞장... 덕분에 무주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 할 수 있었다” 감사 전례

무주군은 지난해 12월 30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제34대 서재영 부군수의 이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각 실·과·읍·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는 꽃다발과 재직기념품, 공로패 전달, 직원들과의 악수례,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자연'과 '사람', '무주다운'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무주, 경쟁력 있는 무주 실현에 앞장서주셨던 서재영 부군수께 감사한다고 말 문을 연 황인홍 무주군수는 "덕

분에 무주가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라며 "관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준 부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또 "부군수님은 무주가 태권시터로서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역량을 키우며 농업과 문화, 체육의 고장으로서도 단단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힘써주셨다"라며 "이를 토대로 무주가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다짐,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 자연특

별시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재영 부군수는 "무주군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군민을 위한 성실한 공직자로서 지난 1년, 무주다운 행복한 군민 실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연특별시 무주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태권도, 반딧불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역량을 보낼 것"이라며 "무주가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무주다운'으로 영원히 빛나길 언제나 응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990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서재영 무주군 부군수는 그동안 행정과 농업, 문화예술, 의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왔으며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2팀장, 문화정책팀장, 새만금수질개선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총무과장 등을 역임하고 산자부와 국회사무처 등지에서 일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왔다.

무주군에는 지난해 1월 2일에 부임해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에 매진해오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일자리 민생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게 됐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주요 보건분야서 연이어 표창 수상 쾌거

장수군이 최근 모자보건사업과 감염병관리 분야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연이어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다.

군은 다양한 출산장려지원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영아기 유아용품 무상대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인산부 배려문화 확산과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종류와 주요 증상을 알리고 예방 수칙 준수를 독

려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더불어 농업 관련 고위험군을 위한 12개 유관기관과의 협력교육, 보건지소·진료소와의 연계교육으로 군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개인 행동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최훈식 군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감염병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도내 최초 비하우징 설치...야생벌 서식지 마련

진안군은 야생벌을 찾고 조사하며 기록하는 모임인 '벌 불일 있는 사람들'과 지난해 12월 30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시업포장 내에 비하우징을 설치했다.

비하우징(BeeHousing)은 '벌 불일 있는 사람들'에서 제안하는 참여형 야생벌 서식지로 벌들이 추운 겨울도 버틸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날 비하우징 설치에는 (사)전북 생명명의 숲 등 관심있는 군민들이 모여 함께 제작에 힘을 보태며 벌의 생태계 적응에 대한 관심을 나누었다.

꿀벌과 야생벌은 화분매개곤충으로써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 살충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급격하게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벌 불일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관련 모임들은 이러한 위기를 공감하고 있는

이들이 모여 야생벌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주위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수정 공동대표는 "자연환경이 날다 큰 진안에서는 어떤 벌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된다"며, "비하우징에 올 수 있는 벌들은 꿀벌이나 말벌처럼 사회성 곤충이 아니라 홀로 살아가며 단독생활을 하는 벌들이라 덜 위험하니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최건호 산림과장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동선을 고려해 비하우징을 배치함으로써 야생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비하우징을 진안에서 설치하고 관찰하면서 야생벌에 대한 환경 연관성을 함께 기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행정의 근본, 무실역행의 자세로”

황인홍 무주군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은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무주군은 내용과 실질을 중시하며 실천의 의지로 힘써 행하는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를 모든 행정의 근본에 두고자 합니다.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광생활인구를 키우 서민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스마트 시설 확대와 기술 지원으로 '농업' 분야 경쟁력을 다질 것입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



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안전한 무주를 만드는 데도

실현을 기울일 것입니다.

군민의 삶을 헤아리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 행정을 응원해주시길 바라며 '재기와 희망'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개신창래의 자세로 힘차게 나아갈 것”

최훈식 장수군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장수군수 최훈식입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새롭게 거듭나며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은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화합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가겠다는 성화약진(成和躍進)의 자세로 힘차게 달려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2025년 장수군은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할 창조의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자세로 장수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 장수군의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 우리 군민 모두의 소망이 이뤄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실군, 전북도 미세먼지 저감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평가'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미세먼지 대응에 준비된 지자체임을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평가는 ▲생물성 연소 저감 이행 ▲비상저감조치 이행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주요 사업 집행 ▲주요 시책 추진 ▲가점 총 6개 부문 21개 지표를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종합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청정 임실의 면모를 과시했다.

군은 미세먼지 저감의 주요 성과로 집중관리도 관리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단속 등을 꾸준히 실시했다.

또한, 영농잔재물 처리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장회·영농교육 등을 통해 수차례 홍보 및 교육을 진행했으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원을 통한 불법소각 단속을 수시로 실시했다.

임실군의 이 같은 성과는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 및 홍보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들의 높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심 민 군수는 "쾌적하고 건강한 대기 환경을 위해 선도적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불법소각 금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실=정해영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친환경 행동 플라스틱 병뚜껑 3500개 기증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지난달 27일 고창 친환경 관광 캠페인 '고창 그린 발자국 여행'에서 관광객과 함께 수집한 플라스틱 병뚜껑을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에 기증했다.

'고창 그린 발자국 여행' 캠페인은 관광객 대상으로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의 지속 가능한 여행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한 친환경 행동 실천 인증 캠페인이다.

이번 기증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해 9월부터 4개월간 고창 방문 관광객과 관내 협력 사업체 7개소 및 고창문화관광재단, 탐사르코 창갯벌센터 등 문화관광시설 종사자 500여명이 함께 총 3500개의 플라스틱 병뚜껑을 주웠다. 재활용 가능 병뚜껑을 분류해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에 기증했다.

이렇게 전달된 플라스틱 병뚜껑은 전주시새활용센터 입주기업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생활용 굿즈로 업사이클링하여 자원순환 하게 된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안중선 상임이사는 "작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었을 때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로로스윗, 군산 어르신께 단백질 커피믹스 500만원 상당 기탁

지난해 12월 30일 군산시는 단백질 커피믹스 브랜드 로로스윗(대표 박찬윤)이 지역 어르신들께 전달해 달라며 500만원 상당의 단백질 커피믹스 제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개발된 로로스윗은 출시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제품의 브랜드 스토리에 공감하고 차별화된 맛과 건강한 성분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그동안 받은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는 취지로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박찬윤 대표는 "어머니처럼 건강 때문에 커피믹스를 마시지 못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 걱정 없이 달콤한 커피 한 잔을 즐기면서 일상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 하고 싶다"라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위메이크 스윗' 캠페인이라 이름으로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주)호룡, 김제시에 이웃돕기 1억 3천만원 기탁

연말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열기 더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주)호룡(대표이사 박장현)이 지난달 30일 이웃돕기 성금 1억 3천만 원을 기탁하며 연말 나눔 행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박장현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에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며, "그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자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주)호룡의

의미 있는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는 나눔이 김제시의 희망 온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호룡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 조손가정비 후원 등 해마다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며 나눔 복지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온봉기



김제시는 (주)호룡 대표이사 박장현이 지난해 12월 30일 이웃돕기 성금 1억 3천만 원을 기탁하며 연말 나눔 행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완주군, 모범 사회복무요원 2명 표창 격려

근무태도 우수하고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

완주군이 일반행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소집례제 시기에 맞춰 모범 사회복무요원 2명을 선정하고, 격려했다.

지난 달 30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심규성, 이지성 모범 사회복무요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복무하는 21개월이 미리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적극 발굴하고 포상해 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범 사회복무요원은 근무태도가 우수하고,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선발했다. /완주=김명근기자



태인컨트리클럽, 지역 사랑으로 빛난 1억 기부

태인컨트리클럽(이하 태인CC)이 정읍시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사랑을 실천했다.

태인CC는 지난 해 12월 30일 정읍시를 방문해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장학금과 이웃사랑 성금으로 기탁했다.

태인CC 관계자는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학수 시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 주신 성금과 장학금이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을 지역 인재 양성과 복지 향상을 투명하고 알차게 사용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태인CC는 이웃돕기 성금 기탁, 독거노인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기탁 역시 지역 사랑과 상생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연말 연시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붕어빵아저씨 김남수씨, 올해도 아름다운 선행

매일 1만 원씩 모아 마련한 성금 365만 원 기탁

"이웃을 돕는 일은 가장 큰 기쁨이고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나눔을 이어가고 싶어요"

지난해 12월 30일 익산시청을 찾은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씨는 이웃돕기 성금 365만 원을 기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된 후 저소득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원광대학교 후문 맞은편에서 붕

어빵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남수씨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매일 1만 원씩 모아 365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김남수씨의 아름다운 선행은 10년이 넘게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또한 메르스 발병, 산불, 지진, 코로나19 등 사회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장수군 성암농능조합법인, 장수군에 한돈 7200kg 기탁

장수군 변암면 소재 성암농능조합법인(대표 이성철)이 지난달 27일 군정에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 및 경로당에 전해달라며 돈육 7,200kg(16kg 450박스, 7,0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이성철 대표는 매년 관내 경로당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물품기탁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294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성암농능조합 이성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주시는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각 사회복지시설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정읍소방서, 119리본구급대원 백승철, 이희중, 황병권 3명 선발

정읍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지난달 30일 하반기 119리본(Re-born)구급대원으로 선정된 소방교 백승철, 이희중, 황병권 3명의 대원에 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19리본(Reborn)구급대란 Re(다시)+born(탄생하다)의 의미로 심정지 환자를 죽음의 문턱에서 소생시켜 새 생명을 부여한 구급대에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표창 수여자에게는 1일의 포상휴가와 119리본구급대 배지가 함께 수여된다.

119리본(Reborn)구급대 선발된 백승철 대원은 "구급대원이라면 그 누구나 했을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천 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생명을 지킨 우리 구급대원들 모두가 자랑스럽다"며 "우리 구급대가 정읍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식품위생정보원 전윤기 대표, 무주에 장학금 3백만 원 기탁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는)은 지난 달 30일 식품위생정보원 전윤기 대표가 장학금 3백만 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전윤기 대표는 "2018년부터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가공창업반 강사로 출강하면서 무주군과 맺은 인연으로 무주군 청소년 교육과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작지만 꾸준한 응원이 아이들이 꿈을 실현하는데 든든한 뒷받침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윤기 대표는 무주군 지역 내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의 위생·안전과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가로서 컨설팅해 왔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8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전한 건설문화, 함께하는 행복동행" 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28대 회장단 및 제7대 대표회원"



회장 소재철

Table listing members of the association, including names and titles like '대표회원' and '운영위원'.

CAK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TEL : (063)288-3881~2 FAX : (063)285-5290

〈一事一言〉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2)

유시민
작가

넷째는 소위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 또는 언론인들이다. 극소수 공영방송과 '기자들의 신문'을 제외한 모든 신문방송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윤석열의 검란(檢亂)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 칭송하고 검란의 주모자를 '공정과 정의의 화신'으로 추켜세웠다. 대통령 윤석열과 영부인 김건희의 기괴한 언행에 대한 폭로가 나오면 심층 취재와 후속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거나 제보자를 공격했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한 민주당 정치인들을 시대상적 선동가로 몰아세웠다. 하이어나처럼 조국 가족에게 달려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죽은 윤석열'을 몰아붙이고 있다. '윤석열이 그 정도로 쫓겨났다'는 변명은 이제 와서 하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정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며 무속을 신봉하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은 국립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전두환을 찬양하고, 공과사를 구분하지 않으며, 남과 대화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윤석열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행위에 동조하면서 '사법 리스크'라는 말로 검찰독재의 '사법 피해자'인 이재명을 비방했다. 윤석열의 반자리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정치인을 끼워 넣을 목적으로 지금도 '이재명 악마화'하고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8할은 언론인 책임이라고 나는 믿는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이 80퍼센트에 육박한

다. 그런데도 국민은 불안하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여섯 가운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탄핵 결정이 지연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트럼프가 취임해 한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 윤석열이 돌아와서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 북한을 도발해 국지전을 터뜨리면? 국민 항쟁이 일어나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민주당이 이끄는 국회를 믿는다. 적어도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다. 그것이 윤석열의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권력이 대립하는 '혁명적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통성 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권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한적이지만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행정권을 대리 행사한다. 윤석열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내란 수사를 지휘한다. 검찰독재 협력자와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는 말이다. 다른 하나의 정통성 있는 권력 리스크라는 말로 검찰독재의 '사법 피해자'인 이재명을 비방했다. 윤석열의 반자리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정치인을 끼워 넣을 목적으로 지금도 '이재명 악마화'하고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8할은 언론인 책임이라고 나는 믿는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이 80퍼센트에 육박한

입은 분명하다. 언론은 입을 닫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한 리더는 이재명이다. 그는 검찰독재의 사법적 공격과 김진성의 물리적 테러를 견뎌내고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이끌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를 감지하고 지속적으로 경고하면서 대비책을 세웠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결속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신속하게 의결함으로써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꺾었고 윤석열 탄핵안을 열흘만에 가결시켰다. '계엄의 밤'에 국회로 달려왔고 날마다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 갔던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었지만, 민주당의 실력과 이재명의 리더십 또한 인정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검찰독재 협력자와 내란 공범들이 장악한 한덕수 행정체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아내고 내란 특검을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나씩 해나갈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확고한 헌법적 정통성을 지닌 권력기관은 국회 하나뿐이다. 그 국회를 압도적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연대해서 운영한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확고한 리더십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이 무엇을 불안하게 여기는지 알고, 그것을 해소할 전략과 전술을 찾으려고 아이디어를 모은다. 가장 큰 책임을 맡은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나는 불안감이 들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당연합이 내리는 결정을 살핀다.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만

인이 저마다의 해법을 주장할 때,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만 할 때, 그럴 때 나는 유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정당과 리더의 판단을 따른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 순간 믿을 수 있는 정당은 어디이며 리더는 누구인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민주당과 연대하는 정당들이다. 그들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몰락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한덕수에게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 국무총리를 탄핵하든 다른 조치를 하든, 나는 민주당이 하는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려고 한다. 획득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두 검토한 끝에 내린 최선의 결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멀리서 공개된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비평가보다는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가 더 나은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내가 찾는, '윤석열의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이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을사년 새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자

2024년 연말,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혼란과 비극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 내란 사태와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 항공 참사는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의 순간에도 우리는 새로운 을사년을 맞이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먼저 무안공항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인재다. 사고의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한편, 내란사태로 인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윤석열의 계엄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미친짓이었으며 이는 반드시 법과 정의의 잣대로 단죄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혼란을 극복하는 길은 복수나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를 굳건히 지키는 데 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단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다. 최 권한대행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

업이다. 이번 참사와 내란 사태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자본주의의 탐욕과 이윤 중심의 사고방식이 사람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냈으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책을 넘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안전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이 변화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비판과 요구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새로운 을사년은 우리 모두가 희망의 씨앗을 심는 해가 되어야 한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분열 대신 연대를 선택하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가득 차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염원한다.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이상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면 새로운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함께 나아가 때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을사년 새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국민께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 지금의 고통을 딛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

고산향교 대성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교육문화, 향교
지정일 - 1985년 8월 16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44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창간 /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출판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감독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전북도시가스(주) JEONBUK CITY GAS CO., Ltd.

누구나 행복한 새해 福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새해 새해에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여러분의 가스안전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안내

전북도시가스(주)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북도시가스(주) 홈페이지(www.jbcitygas.co.kr)를 참조하시어 소정의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911-7700)

謹賀新年

▲오늘의시

신년시 / 안도현

<p>닭이 울어 해는 뜨다 당신의 어깨너머 해가 뜨다 우리 맨 처음 입맞춤 때의 그 가슴 두근거림으로, 그 떨림으로 당신의 어깨 너머 첫닭이 운다 해가 떠서 닭이 우는 것이 아니다 닭이 울어서 해는 뜨는 것이다</p>	<p>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 눈 뜬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울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울었기 때문에 세계가 눈을 뜬 것이다 사랑하는 이어,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 아침에 맨 먼저 일어나</p>	<p>더도 덜도 말고 냉수 한 사발 마시자 저 먼 동해 수평선이 아니라 일출봉이 아니라 냉수 사발 속에 뜨는 해를 보자 첫닭이 우는 소리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끝으로 울음소리 한번 내질러보자</p>
---	--	--

전북도시가스(주) JEONBUK CITY GAS CO., Ltd.

누구나 행복한 새해 福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새해 새해에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여러분의 가스안전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안내

전북도시가스(주)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북도시가스(주) 홈페이지(www.jbcitygas.co.kr)를 참조하시어 소정의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911-7700)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신년 인터뷰

- 독자적인 비전과 전략 실행...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본격 개막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았는데 지난 1년의 의미가 큼급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와 도약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128년 동안 사용하던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뒤로하고, 독자적인 비전과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정책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지난 연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출범 이후 1년간 발굴한 75개의 실행과제 중 52건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북특별법의 핵심인 농생명산업지구, 산악관광진흥지구 등 14개 특구·단지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서 도민의 삶에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겠습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가장 먼저 달라지는 변화, 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아무래도 농생명산업지구가 아닐까 합니다. 과거에는 농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생명산업지구 내에서는 이 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지 활용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면서, 농생명산업지구는 단순 농산물 생산 기지가 아니라 가공, 유통, 수출, 관광까지 포괄하는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남원, 장수, 진안, 익산 등 선도지구 7곳을 이미 선정했습니다. 빠르게 조성을 해서 그 효과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대기업 5개 유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올해 한국미래소재를 유치하면서 (주)두산, 삼성전자, LG화학, LS MnM, LS-L&F 배터리솔루션까지 총 6개의 대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열심히 뛰어준 공직자들 덕분에 조기에 초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MOU체결 이후 투자 완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앞당기기 위해 투자보조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환경단속사전예고제, 세무조사시기선택제 등 기업 체감도가 높은 정책도 꾸준히 시행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도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도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전북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2,700억 원 규모의 육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장기근속한 제조 명인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낮추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편익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도내 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2만여 건이 넘는 투자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이차전지특화단지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이뤄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새만금투자진흥지구는 전북의 기업 유치가 있어 핵심동력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세계 혜택과 기반시설 지원인데요. 이들 지구가 투자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 동안 100% 감면하고, 그 이후 2년간 50%를 추가 감면하는 세계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혜택 덕분에 새만금 산업단지의 부지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기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진행 중입니다.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됐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증액에 총력을 기울였던 많은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와 내부개발사업은 1년 지연이 예상되고, 일부 신규사업이 미반영돼 도정 핵심사업 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은 정부 안에 충분히 반영돼 사업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새해 전북도정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새해에도 전북도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도전'입니다. 도전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실현하는 의지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난해 잼버리의 아픔을 딛고, 2024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어려움을 반전시키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2036년 올림픽 유치, 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등 전북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전북도정의 큰 목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인데 전략이 있습니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준비하면서 교류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전까지는 5성급 호텔과 대규모 컨벤션이 대회 유치의 전제조건처럼 여겨졌습니다. 경쟁지였던 제주와 인천도 5성급 호텔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유치가 뛰어난 것이죠. 기존의 평가방법과 동일한 문법으로는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장점인 한옥, 한식, 한복, 판소리를 보여주고 또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미래의 땅 새만금을 보여주는 콘셉트를 제안했고, 이게 적중했습니다. 올림픽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대도시인 서울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한다면 승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인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은지에 중점을 두면 우리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와 미래 성장산업에 주력해 왔는데 새해에는 계획은 어떤지요.

작년에 바이오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신성장기업 72개사 2조7천여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올해도 전북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미래신산업을 선도할 것입니다.

특히 이차전지와 바이오, 방위산업, 미래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5대 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푸드와 금융, 기후, 문화테크 관련 기업 유치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투자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회발전특구가 지난해 88만평 정도 지정됐는데 올해 112만평 추가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전북의 미래산업인 5대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계획입니까?

전북은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수소, 재생에너지, 이렇게 5대 신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각 산업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북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이차전지 산업은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광물가공과 리사이클링에 특화된 곳입니다. 여기에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차전지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그린바이오를 기반으로 레드바이오로 확장하려 합니다. 전주의 탄소산업, 완주의 수소산업, 그리고 새만금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연계해서 새만금 민간 겸용 실증테스트베드와 연구 실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방산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소와 재생에너지 산업은 전북이 이미 선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이 임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나?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은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힘을 모아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면 행정비용 절감, 국가 예산 확보의 우위,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지자체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설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전북의 숙원인 대광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적 상황, 특히 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

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법안들의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이고, 대광법 개정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정국이 시작되기 전에 두 차례 심사가 연기되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대광법은 도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아 도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함께 도전하며 전북의 가능성과 자력을 확인했습니다. 새해에도 전북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으로 농생명산업과 산악관광 등 특화된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2036년 올림픽 유치라는 담대한 도전도 이어가겠습니다. 전북이 하는 모든 도정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향합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도지사 신년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지역 경제에 희망을 심었고, 올해도 이 희망의 불씨를 더욱 키우겠습니다.



심 산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우리는 지금 '탄핵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지혜로운 민주시민의 힘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기회발전특구, 새만금 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등 다양한 특례를 적극 추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려 경제에 온기가 들 수 있도록 비상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북형 스마트공장,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핵

도민 여러분! 도전이야말로 전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도시, 문화도시 전북의 자부심과 초지일관의 자세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새해,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김은지 기자

